

‘전주발효식품엑스포’ 식품산업 역량 키운다

(10월 25~29일)

전북도, 사업 전략 발표

국내외 우수업체 유치 주력 참여행사 확대에 홍보효과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전북 식품산업 역량 강화에 주력하는 활성화 전략을 세우 주목된다.

전북도와 (재)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이하 생진원)은 오는 10월 열리는 제16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대한 사업 전략을 최근 발표했다.

올해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지난 2016년부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생진원은 지난해 행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수기업 유치와 바이어 선별 강화, 콘텐츠 확대를 통한 질적 내실화 구축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추진으로 전북 식품산업 역량강화에 주력키로 했다.

홍보 마케팅 분야에서는 대내외 홍보 확대를 통해 식품산업 수도 전부를 브랜드화하고 전북도청과 코트라, aT 등과 연계한 상시 B2B 상담회를 운영하며 기업 판로개척 및 성과확대에 나선다.

행사 개최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역 식품기업 역량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시 분야에서는 국내외 우수업체 유치, 식품산업 트렌드와 바이어 니즈를 반영한 R&D 기반 선도 상품 전시를 확대해 바이어 등 현장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 주말전시 운영시간 연장 요구에 따라 시범적으로 토요일(27일)에 한해 2시간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특별기획전사로 선보였던 전라북도식품명인전을 이전보다 더욱 풍성하게 구축해 선보일 예정이다.

국제컨퍼런스는 한국영양학회와 연계 추진해 식품산업 시장 동향, 최신 연구성과 및 신기술 정보 공유의 장으로 구성, 세계적 수준의 컨퍼런스를 개최해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체험분야는 발효식품을 활용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미래 세대에 교육적 효과와 전통식품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모든 세대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현장 이벤트를 운영해 방문객 참여 확산을 이끌어 전북 체류 및 홍보를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동수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은 “올해 발효식품 엑스포는 질적 내실화를 기반으로 기업과 지역 식품산업 역량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며 “지역 농식품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엑스포가 되도록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와 생진원은 엑스포 행사장에서 ‘제13회 전북음식문화대전’을 동시에 개최해 상호 시너지 효과가 기대하고 있으며 식품산업 구인구직 채용박람회와 창업컨설팅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익산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내일 모현시립도서관

익산시는 사회적경제 시민아카데미를 오는 11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모현시립도서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시민아카데미는 시민주거 안정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유주택과 사회주택에 관심이 있는 익산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번 아카데미는 공유주택과 사회주택에 관심 있는 익산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날 기노재 (주)아틀리에건설 대표이사 사가 ‘공유주택의 개념과 사례분석’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또 남철원 서울시 사회주택지원센터 센터장이 ‘사회주택과 사회주택기금 지원 정책’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익산=유정경 기자 yjy@kwangju.co.kr

위기의 군산 협력업체들...市, 150곳 물류비 지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경영위기를 겪는 전북 군산지역 협력업체에 물류비가 지원된다.

군산시는 9일 군산조선소와 군산공장 협력업체 150여 곳에 물류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와 군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군산조선 협의회, 군산자동차협회 등과 함께 지역 협력업체가 신규 물량을 수주할 경우 최대 50%의 물류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물류비 보조금 신청·문의는 군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에서 받는다.

김구선 협의회 회장은 협약식에서 “물류비 지원은 그 어떤 정책보다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다”며 참여기관에 고마움을 전했다.

강일준 군산시장은 “물류비 지원은 경영



한국GM·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물류비 지원 협약식
2018. 7. 9.(월) 10:30 / 면담실

군산시가 한국GM과 현대중공업 중소기업협력업체 등과 물류비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군산시 제공)

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 업체가 위기를 극복하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기섭 기자 nogusu@

정읍 물놀이 명소 8곳에 안전요원 배치

정읍시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9일 정읍시에 따르면 칠보면 고현교를 비롯한 물놀이 관리지역 8개소에 18명의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시설 점검을 마쳤다.

시는 인명 구조함 등을 정비하고 구명환과 구명로프, 구명조끼 등을 비치했다.

시는 이를 통해 응급 상황 발생시 누구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시는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시는 안전관리 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읍소방서와 연계해 심폐소생술을 비롯해 구명환과 구명 로프 등의 활용 방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비상사태 발생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실습도 강화해 실시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이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물놀이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함께 물놀이 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북도, 미세먼지 오염 원인 분석 착수

전북 지역의 미세먼지의 농도가 전국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전북도가 세부적인 원인분석에 나선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맑고 푸른 하늘을 되찾기 위해 하반기부터 세부적인 원인분석에 나설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군별 맞춤형 원인분석을 위해 농도가 높은 지역부터 미세먼지를 수거해 이온 성분, 중금속, 탄소성분 등 화학성분과 배출량 분석 등을 통해 종합적인 저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대기오염측정소가 설치되지 않아 정확한 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 없었던

동부권 무주군과 임실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정읍시 신대면에 최근 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했다.

현재 설치작업이 진행 중인 장수와 순창, 고창 등의 측정소 설치가 마무리되면 전북 도내 대기오염 측정소는 지난해 8개 시·군 15개에서 14개 시·군 24개로 크게 확대된다.

전북도는 14개 모든 시·군의 지역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시·군 권역별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용도 원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시, 살수차 도입...도로 이물질 ‘썩썩’

남원시는 최근 고압살수장치를 장착한 다목적 도로관리차량(사진)을 도입해 국도와 지방도,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포함 총 57개 노선 431.5km를 상시적으로 정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도로관리차량은 기존 노면흡입차량이 도로상에 물기를 머금은 흙과 자갈, 모래 등을 흡입할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해 고압살수장치를 이용 청소하게 됨으로써 도로상에 있는 이물질을 상호 보완해 처리하게 된다.

기존 노면흡입차량은 약간의 소음이 발생하는 반면 다목적 도로관리차는 일체의 소음이 발생하지 않으며 노면흡입차량이 속도를 낼 수 없어 차량의 통행이 적은 새벽녘에 실시해야 했지만 다목적 도로관리차량은 일정부문의 속력을 낼 수 있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겨울철에는 제설기를 장착해 제설작업



을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 비용에 맞는 장비를 부착하면 도로면 제초작업과 가드레일 청소, 터널 청소도 가능하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남원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마무리

이장 윤지홍·부의장에 양해석

남원시의회의는 지난 6일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8대 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3명을 선출하고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운영위원장은 조선의 김영태 의원이 선출됐으며, 총무위원장은 재선의 한명숙 의원, 안전경제건설위원장은 3선의 김중관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앞서 남원시의회의는 지난 3일 제223회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 선거를 진행해 의장에는 윤지홍 의원을, 부의장에는 양해석 의원(더불어민주당·3선)을 각각 선출했다.

윤지홍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제8대 의회 임기 동안 시민 여러분과 소통, 화합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윤지홍 의장 양해석 부의장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원시의회의는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의회의 모든 업무와 의정활동을 시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출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은 오는 2020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입전마을 ‘생생마을 콘테스트’ 행복상

고창군은 전북도가 주최한 ‘제5회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신림면 입전마을이 행복마을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입전마을은 올해 경관 분야에서 우수 상인 행복마을상을 받아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이 마을은 방장산 산기슭에 자리해 있으며 전북도 삼락농정의 일원인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같이’를 주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주민들은 무너져 가던 돌담을 다시 쌓으며 마을 경관을 개선하는 등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

또 귀농·귀촌인과 주민들이 화합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오고 있다.

이 마을은 콘테스트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단산제 줄감기 퍼포먼스 등을 선보이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해 군민과 함께 활기차고 행복한 고창 만들기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통해 주민의 자율적인 마을개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kwangju.co.kr

상가(빌딩) 매매
- 진월동 -

- 대 지 1,132㎡
- 건물 4,739㎡(공실없음)
- 매 가 78억
- 수익률 6.8%

☎ 010-2602-7266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참숯 떡갈비/통닭 비비큐 훈연기
현제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제품크기
• BN 1500 : 1440(L) × 650(W) × 1250(H)
• BN 1000 : 940(L) × 650(W) × 1250(H)

본사/영업본부 : Tel. 02-2029-8188/9 Fax. 02-2029-6404
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신당9번로 45(장덕동)
호남영업본부 : Tel. 062-953-2995 Fax. 062-953-2998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6년
광주일보
창사66주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스엔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